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77호

I

꽃 색 진하고 풍성한 수출용
"팔레놉시스"(호접란) 새로 육성



II

국산 파프리카 베트남 수출 발판 마련!



III

국산 파프리카 중국 시장 수출길 열려!

농수산물 수출 Zoom In 77호 2020. 8. 28(금)

‘20.7.31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55.8억\$

부류별

| 신선 | 가공 | 수산 |
|---|---|--|
|   0.7% 756백만불 |   6.8% 3,513백만불 |   12.5% 1,310백만불 |
| + 김치, 닭고기, 유자차 - 인삼류, 파프리카, 딸기 | + 켈런, 라면, 쌀가공식품 - 음료, 커피조제품 | + 바지락, 오징어 - 김, 참치, 굴 |

국가별

* 쌀 무상원조 실적('19(2.0백만불), '20(1.8)) 제외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 | |
|---|---|
|   미국 852백만불(30.0%) ▶ 대형 마트 연계 임산물 판촉 ▶ 인플루언서 연계 김치 등 온라인 판촉 |  라면(61%), 김(28%)  굴(27%), 음료(△1%) |
|   EU 329백만불(0.2%) |  라면(60%), 김(6%)  새송이버섯(7%), 음료(△12%) |
|  닭고기(17%), 라면(15%)  참치(△29%), 음료(△7%) ▶ 베트남 SNS 연계 과실류 등 온라인 판촉 |  ASEAN 1,050백만불(△0.2%) |
|  닭고기(70%), 라면(54%)  인삼류(△25%), 설탕(△8%) ▶ SNS 연계 김치, 인삼 등 온라인 판촉 |  홍콩 244백만불(△0.5%) |
|  라면(49%), 인삼류(10%)  김(△27%), 음료(△1%) ▶ SNS 연계 농식품 종합 온라인 판촉 |  중국 881백만불(△4.8%) |
|  김치(28%), 김(3%)  참치(△21%), 파프리카(△9%) ▶ 대형 유통 업체 연계 막걸리 판촉 |  일본 1,151백만불(△8.5%) |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20. 1. 1 ~ 7. 31



“ 김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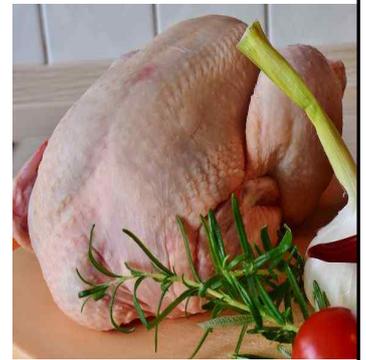
◇ 비건 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등 다양한 제품 판매 확대

97,913천불(40.3%)

▶ 주요 수출국 : 일본(48,633천불, 29.3% ↑), 미국(16,354, 69.1 ↑),
홍콩(4,961, 48.5 ↑), 호주(4,144, 76.4 ↑), 대만(3,736, 23.7)

“ 닭고기 ”

◇ 여름 시즌을 맞아 보양 식품인 삼계탕 레토르트와 기타 간편식 (닭가슴살, 닭날개 등)의 꾸준한 인기로 높은 증가세



▶ 주요 수출국 : 베트남(35,508천불, 12.7% ↑), 홍콩(5,584, 89.1 ↑), 미국(4,302, 72.4 ↑) **50,238천불(24.2%)**



“ 소스류 ”

◇ 삼겹살 등 한국 음식을 즐기는 외국인들이 늘며 곁들여 먹는 장류(쌈장) 등 다양한 소스류 인지도 상승

800,945천불(23.5%)

▶ 주요 수출국 : 미국(46,159천불, 33.5% ↑), 중국(39,178, 36.9 ↑),
러시아(17,734, 16.6 ↑), 일본(15,510, 5.8 ↑), 필리핀(8,560, 4.1 ↑)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농진청 이슈



꽃 색 진하고 풍성한 수출용 "팔레놉시스"(호접란) 새로 육성

농촌진흥청은 새로 육성한 수출용 "팔레놉시스"의 평가회를 지난달 충남 태안의 화훼농가에서 열었다.

팔레놉시스는 꽃 색과 형태가 다채로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난초이다.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3개월 정도로 길어 다른 화훼류보다 오래 감상할 수 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재배 농가와 종묘 생산업체,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 육성한 '원교 F2-44' 등 2계통과 2019년 육성한 "아리아" 품종을 선보였다. '원교 F2-44'는 꽃이 진한 분홍색을 띠고 꽃 크기는 7~8cm에 이르는 중대형종이다. 하나의 꽃대에 꽃이 10송이 정도로 많이 달리고 꽃 배열이 안정적이어서 화분 재배용으로 미국 수출이 기대되는 품종이다. 소형종인 "아리아"는 작지만 화사한 꽃송이가 많이 달리고 꽃대 발생이 우수해 풍성한 느낌을 주는 품종으로, 지난 해부터 유통을 시작했으며, 꽃 떨어짐이 없어 농가와 유통업체,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2017년 미국과의 수출 검역 협상 타결로 팔레놉시스를 화분에 심은 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2019년에는 화분에 심어진 묘 8만 3천본을 미국에 수출했다. 미국 시장에서 팔레놉시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수출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외 현장에서 요구하는 특성을 토대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국산 품종의 국내 점유율을 높이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중대형, 백색, 분홍색 계열 등 미국 시장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 위주로 수출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팔레놉시스 "원교F2-44" 계통

팔레놉시스 "아리아" 품종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국산 파프리카 베트남 수출 발판 마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 요건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 검역요령」 고시를 제정하여 2020.8.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파프리카 업계의 신규 시장 개척 요청에 따라 2008년부터 베트남과 검역 협상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2020년 6월 베트남과의 협상을 완료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시행은 그동안 일본 시장에 편중되어 있던 파프리카 수출이 베트남 시장으로 새롭게 진출하게 됨으로써,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파프리카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 검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산 파프리카 중국 시장 수출길 열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인 영상 현지 검역이 8.24.(월) 완료되어 한국산 파프리카가 중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중국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여왔으며, 2019년 11월 양국이 검역 조건에 합의하고 이후 선과장 등록, 수출 조건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19.12.9)한 바 있다. 금번 영상 현지 검역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비대면(untact) 방식의 현지 검역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중국 해관총서, 수출선과장 현장을 3원으로 연결하여 실시되었다. 영상 현지 검역은 파프리카 수출 검역 전 과정을 영상으로 실시간 보여주면서 중국 측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중국 측은 한국의 파프리카 생산, 유통 시설과 검역 시스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수용하였다.

검역본부는 금번 파프리카 중국 시장 진출은 수출량의 99% 이상이 일본에 편중되어 있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향후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영상회의를 활용하여 농산물 수출 검역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